

교회론 4 교수용 학부

안명준 교수 (성서 초빙)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경 해석

주장

로마교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직자의 권위가 강조된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를 능가한다.

로마교회는 성경이 교회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ecclesia Scripturae interpres*),

동시에 사제에 의하여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교황에 의한(*ex cathedra*) 교황의 무오한 해석을 주장한다.

그러나 평신도 해석권은 무섭게 제한하였다. 심지어 트렌트 회의에서는 성경의 참다운 의미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된 해석자들은 위반자들로 법령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로마교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경은 자신들의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비역사적이며 분파주의로 이끌기 때문에 성경은 전통들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

‘교회에 의한 해석’(*ecclesia Scripturae interpres*)에 반대하여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을 말한다.

개혁자들의 신학적 원리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는 “성경이 어떻게 개인의 양심과 교회의 생활에서 권위 있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혁자들의 전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표어는 개혁자들의 강력한 무기였다. 이 표어를 가지고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맞서 싸웠고 그것들 위에 성경의 권위를 두었다.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는 원리는 해석이 교회의 교리에(*ecclesia Scripturae interpres*) 종속되지 않게 해 주었다.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표어는 개혁자들의 성경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패커(J. I. Packer)는 말하기를, “개혁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원리에 의존했다. 즉 그 견해란 성경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서 교회와 양심을 위한 유일한 안내서이며, 하나님과 은혜를 아는 진정한 근원이며,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교회의 증거와 가르침의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재판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로마 가톨릭교회가 성경 해석의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전통에 두었던 권위를 반대한 유일한 권위였다.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에서 ‘오직’(*sola*)이라는 말의 강한 주장은 이미 성경 해석 원리를 위한 힘, 즉 성경은 외부적인 표준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고 그 자체가 해석자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견해, 즉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은 애매하다는 신학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런 견해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성경은 명료하다는 사실 위에 자신들의 주장을 두었다.

바빙크(H. Bavinck)는 성경의 명료성(the perspicuity of Scripture)을 종교개혁의 강력한 보루로 보았다. 성경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혁자들의 이러한 발견은 성경 해석의 새로운 방법을 열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원리를 그들의 신학적 성경 해석에 적용하였다.

교회의 본질과 특징

교회개혁

공로적 구원관을 개혁하다.

교회의 본질을 시작을 로마교회의 잘못을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새롭게 변혁하여 정립한 (루터가 시작하고 칼빈이 완성)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었다.

칼빈의 교회론 by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¹⁾

교회란 피택자들의 공동체 -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 구원과 생명이 있다.

교회의 필요성 - 우리의 성화를 위해 목사와 교사 임명

무형교회(영적)와 유형교회(선택+유기자 섞여) - 한 교회의 두 면,

교회의 표지 - 참된교회와 거짓교회(로마교회)의 식별. 말씀과 성례-은혜를 경험, 행위나

보상을 가지고 구원이루어가는 수단이 아니다- 카 교회 실수, - 면벌부- 종교개혁

교회의 권징 - 성화의 생활을 위해, 성찬과 관련해서 시행한다.

교회의 직분 -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강태국의 교회론²⁾

강태국 박사는 누구인가³⁾

1) 신복윤, 칼빈의 교회론

https://kirs.kr/index.php?mid=calvin&sort_index=readed_count&listStyle=webzine&l=zh-CN&page=2&m=0&order_type=desc&document_srl=21493

2) 박태수, 일립 강태국의 교회론에 대한 고찰 ,

http://stkets.com/bbs/board.php?bo_table=table43&wr_id=269&device=mobile

3) <https://ko.wikipedia.org/wiki/강태국>

박태수, 일립 강태국의 교회론에 대한 고찰. 조직신학연구, 18 131-163.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설립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루었다. 강태국은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그리스도 자신이므로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였다. 교회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이다. 교회의 계승은 구약교회, 신약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글고 세계교회로 이어지며 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 타락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시작 -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설립자),

교회의 기원 - 타락후 창 3:21, 짐승희생 가족의복이 예수의 상징이며 그림자,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이 시작이다.

교회는 계승되었다. 노아방주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창 22장 이삭희생 - 교회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약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새 언약에서 시작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성령으로 시작), 안디옥 교회(선교시작, 이방인인
중심의 교회), 세계교회로 확장된다.

교회의 필요성 - Calvin's View of the Church as Extension of the Suffering of
Christ(Tae Kook Kang. Th.M. Columbia Theo. Sem. 1950)의 내용에서 양육과 지원이
필요하고,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의 정의 - 그리스도의 몸, 신자의 어머니, 성도의 교통,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선상으로
서의 교회(사탄의 박해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보존하신
다.** Calvin's View of Church, 135-36)

교회의 속성 - 거룩성, 일치성,

교회의 표지 - 말씀의 올바른 선포, 바른 성례시행

결론적으로 강태국의 교회론 특징

성서 중심의 교회, 복음전파의 교회,

초교파적 독립 교회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자신부인, 주인이 하나님 -칼빈 강요 3:7.1 재인용)

칼빈의 교회론에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연약함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있도록 하신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나, 교단이나, 교파가 아닌 기독교로
보았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교회이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신자의 어머니로서 교회, 성도의 교통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선상으로서 교회 등으로 설명하여 성서적인 교회관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교회의 속성으로는
거룩성, 일치성, 하나됨을 강자하고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등을 강조한다. 강태국의 교회론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성서중심의 교회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참된 교회의 회복은 성서말씀의 바른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전파로 보았다. 또한, 초교파적인 목회관을 지향하며 지상교회의 교파나
교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초교파적 목회관을 성경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교파투쟁과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보았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이어야 함을 강조한다.**<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178187>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1. 교회라는 말의 다양한 의미

1. 대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위한 지역적 신자들의 단체, 즉 **지 교회**, 회집을 의미한다(행 5: 11; 11: 26; 롬 16: 4; 고전 11: 18; 16: 1).
 2. 가끔 이 용어는 **가정 교회**, 곧 집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롬 16: 5, 23; 고전 16: 19; 골 4: 15).
 3.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이 말은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나 구주와 영적으로 연합된, 또 장차 연합될 신자들의 전 단체(엡 1: 22; 3: 10, 21; 5: 23; 골 1: 18, 24)를 가리킨다.
- 초대교회 예배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2. 교회의 본질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견해에 차이가 있다.

로마교회

교회의 본질을 외부 또는 유형적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찾는데 신자들로 구성된 전 단체가 아니라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과 같은 교권자들의 단체이다.

로마 교회는 계급화된 교회관이다.

루터 만인 제사, 사제, 평등 누구 하나님앞에 나갈수, 사제없이

그들은 ‘교훈하는 교회’로서의 단체와 ‘교훈을 받는’ 혹은 ‘설교를 듣는 교회’로서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구별해 놓았다. 이들은 교훈하는 교회(교권자들의 단체)로서의 단체와 교훈을 받는(설교를 듣는 교회) 신자들의 공동체로 구별하였다. 또한 외형적 조직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칼 라너, 종교다원구원관 변질.

개혁자들의 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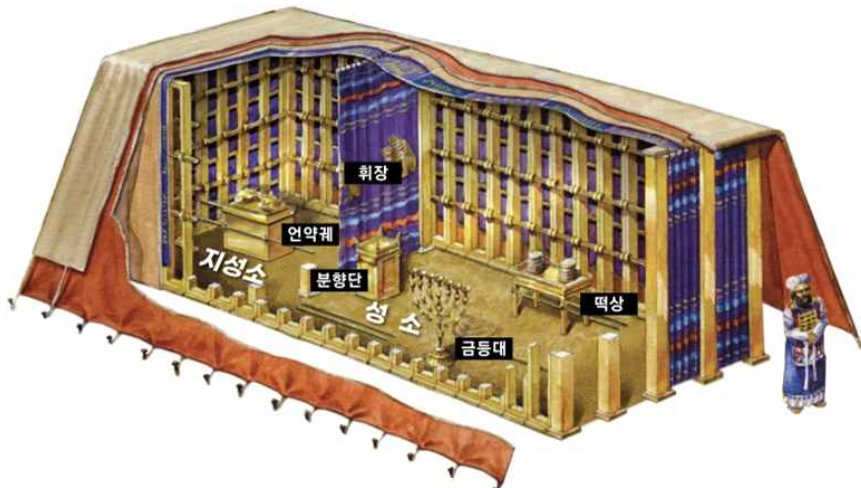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러한 외적인 관념을 깨고 성도들의 내면적,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 교회는 그 본질적인 성질에서 볼 때 모든 시대의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포함하지 않는다. 내면적이며 영적 본질의 참된 교회에 구원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체로서 구속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곳이다.** 로마교회처럼 화려한 치장으로 인위적 교권을 만들어서 인간들의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3 교회의 정의

무형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피택자의 단체** 혹은 **신자들의 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유형 교회란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형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와 위선자가 있을 수 있다.

4. 여러 시대의 교회



성막구조⁴⁾



성막 설명⁵⁾

4) <https://blog.naver.com/jesus-gospel/222643315637>

5) http://www.sermon66.com/news_print.html?s=index&no=190690

구약시대의 교회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을 지상 교회로 본다면 에덴동산이 교회의 첫 시작이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의 범죄에서 말씀하셨던 원시 복음(창 3: 15)이 주어졌던 그 당시에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덴 동산-신약교회의 근원, 단(제단)-신약교회의 예표, 광야교회-신약교회 예표, 성소(성전)-신약 교회의 예표

광야교회

스데반은 설교 중에 ‘광야교회’(행 7:38, ἐκκλησίᾳ)라고 불렀다. ‘광야교회’의 첫 모습은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인 무리를 말한다.(신 5:22) 이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불러 모으신다.(레위 8:3, 신 4:10, 31:12) 곧 ‘총회’나 ‘회중’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뜻이다.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여호수아가 에발 산에서 여인과 아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했다.(수 8:35) 바로 이런 ‘회중’이 ‘광야교회’이며 이의 본을 따라 이후에 모인 ‘회중’도 ‘광야교회’의 연속선상에서 말할 수 있다.

족장 시대의 교회

교회는 경건한 가정에서 존속되었다. 족장 시대는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노아의 가정에서 보존되고,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세계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수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모세 시대까지는 족장들의 가족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스라엘 국가의 교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를 형성했고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했다.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회 국가 형태였다. 이스라엘은 첫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켰다.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하지만 주실 땅에 이를 때에야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했다.(출 12:24,25) 그리고 자녀들이 이후에 이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게 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했다.(출 12:27,28) 율법, 성막제사, 할례,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 반항, 신약 서. 바. 율, 장, 메시아 거부 성령 훼방죄 용서. 저주 심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영국에서 the oldest Bevis Marks synagogue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종 인정을 받는 것이다. 유대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로서 구원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은 표면적 국가적 유대인이 아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자이며 구약 예언된 메시아를 인정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표면적 문자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수 없다.

유대인들의 회당 즉 시나고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머린 교회에 속한 성도만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다.

구약시대 교회의 특징

- * 성막과 성전 중심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하다.
- * 구약 교회의 본질은 예배 회중이며 이 예배의 주요 요소는 말씀이다.
- * 예배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다.(삼상 11:9) - 성전 건축 준비(대상 29장), 성전 봉헌(대하 6장), 여호사밧의 전쟁 승리(대하 20장)
- * 그림자로서 교회

신약교회의 모형과 예표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부로서 아담과 하와는 신랑되신 예수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아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figure)이다(롬 5:14).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말씀 속에는 교회의 시작, 존재 목적, 사명 등 영적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구약교회에서 성령님은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함께하셨다.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실체이다. 구약의 성막에서 그림자로 나타났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교회 그 자체이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을 불러내셨다. 제자들을 부르시

고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다. 마태 16:18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오순절 이후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와는 독립적인 조직을 가졌다. 이때부터 교회는 세계적 성격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며 의식적 예배에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되었다.



칼빈이 목회한 제네바 피에르 교회

신약교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공동체

예배공동체

은혜의 방편(수단)인 설교와 성례가 있는 곳, **구원의 방편, 구원의 수단- 로마교회**

그리스도와 성령의 전- 성령이 역사하며 온 성도들을 이끄신다. 바벨탑은 언어혼잡 흩어짐,

오순절 방언- 성령으로 모여 하나 말씀 듣고 교제의 통일성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말론적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강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행전 2:44-45)

지역을 넘어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보편적 공동체이다.

교회에 대한 어원적 접근

구약

교회와 관련되어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레이몬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⁶⁾

- * 에다- “지정된 모임”, “집회” 또는 “회중” 등을 뜻한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단어는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킨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든지 흩어져 있든지 말이다. **עדה** (에다)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본문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기록된 구약 책들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 * 카할 - “모임”, “집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회중**을 가리키고 있다.
- * 카할 에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인 집회”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들이 모인 집회”를 뜻한다. 레위기 16장 33절에서는 집회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 쓰였다.
- * 모에드 -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집회’로 번역되어 있다.

70인역(LXX)-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중

수나고게 -장소, 유대인 회당, “모이는 장소”, “집회 장소”를 뜻하는 말이다.

에클레시아 - “부르다, 소집하다”를 뜻하는 동사, “집회” 또는 “회중”을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공동체, 언약에 따른 집회로 모임**

신약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집회, 모임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18) (κάγω δέ σοι λέγω ὅτι σὺ εἶ Πέτρος, καὶ ἐπὶ ταύτῃ τῇ πέτρᾳ οἰκοδομήσω μου τὴν **ἐκκλησίαν**, καὶ πύλαι Ἰδου οὐ κατισχύσουσιν αὐτῇ ς.)(et ego dico tibi quia tu es Petrus et super hanc petram aedificabo **ecclesiam** meam et portae inferi non praevallebunt adversum eam)
meine **Gemeinde**(모임, 집단, 교회), meine **Kirche**

1. 교황권 아니다
2. 베드로가 전승하는 것 아니다.

6) 최신 조직신학, 『로버트 L. 레이몬드』, 1019-1026.

에클레시아

의미 - 시민의 총회, 민회, 시민들의 공동체

를 발음 그대로 'ekklesia'(에클레시아)로 번역하지 않고 '교회'(church)로 번역한 것이다. 원래 'ἐκκλησία'(ekklesia, 에클레시아)는 신약에 112번 사용되었는데, '집회, 모임'(assembly)을 뜻한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셨고 자기 주위에 모여 공적으로 자신을 주로 시인하고 천국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군중들에게 적용하셨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참된 전파와 말씀, 교육, 성례전의 올바른 시행과 참된 공동체의 교제, 권장의 신실한 수행과 크리스천 삶의 실천이라고 본다.

큐리아콘

belong to the Lord, 주께 속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주의 만찬'(belonging to the Lord, Lord's Supper)으로 사용되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Κυριακὴν'(큐리아케, related to the Lord, 주님과 관련된)는 '주의 날'(Lord's Day)로 사용되었다. 후에 큐리아콘이 주님께 속하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영적인 건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건물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하며, 신자들 자신말로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교회란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불러내신-에클레시아. 특정한 사람들의 단체이다(롬 11: 1-5; 벧전 2: 9). 즉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에 의해 결합된 거룩한 공동체이다. 불의 혀처럼 임하여였다. 왜. 교회는 성령의 집(고전 3: 16),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 26), 그리스도의 몸(엡 1: 23; 골 1: 18), 성령의 전(엡 2: 21), 큰 집(딤후 2: 20),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 15)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9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3: 29; 계 19: 7), 하늘의 예루살렘(히 12: 22), 새 예루살렘(계 21: 9)이라고 불린다. 이 같은 교회에 대한 묘사들은 그리스도와 갖는 친밀한 밀접성과 종말론적(終末論的) 시제 개념들을 다분히 함축하고 있다.